

○ 미래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미래 수요자인 지역 및 배후 대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 등의 프로그램 개발
- 부여군과 지역의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행사 주최
- 발행되는 상품권, 시장 투어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체험을 통한 어린이 경제교육을 실시
- 상품으로 지역 농산물, 부여 사랑 상품권 활용

○ 빈 점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

- 북카페, pc방, 회의실 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
- 상인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형태의 다양한 사업의 공간으로 활용

○ 전문가 멘토링 및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경영상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경영혁신을 위하여 교육 사업 및 지속적인 멘토링 추진
- 경영을 위한 소양교육, 상인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과정을 신설함
- 지역시장 및 상권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
- 회계, 홍보, 마케팅, 세무, 자금, 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함
-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사업은 주변 대학,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진행

○ 부여사랑 상품권 발행

- 부여지역 전통시장과 개별 상점에서 유통 가능한 부여사랑 상품권 발행
- 롯데 부여 리조트, 백제역사재현단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유통방안 모색
- 롯데 부여 리조트 숙박객들에게 상품권 증정을 통하여 부여 전통시장으로 자연스런 관광객 유인
- 발행기관은 부여군, 판매 및 업무대행은 지역 농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을 통하여 유통
-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등 다양한 행사시 부여사랑 상품권 활용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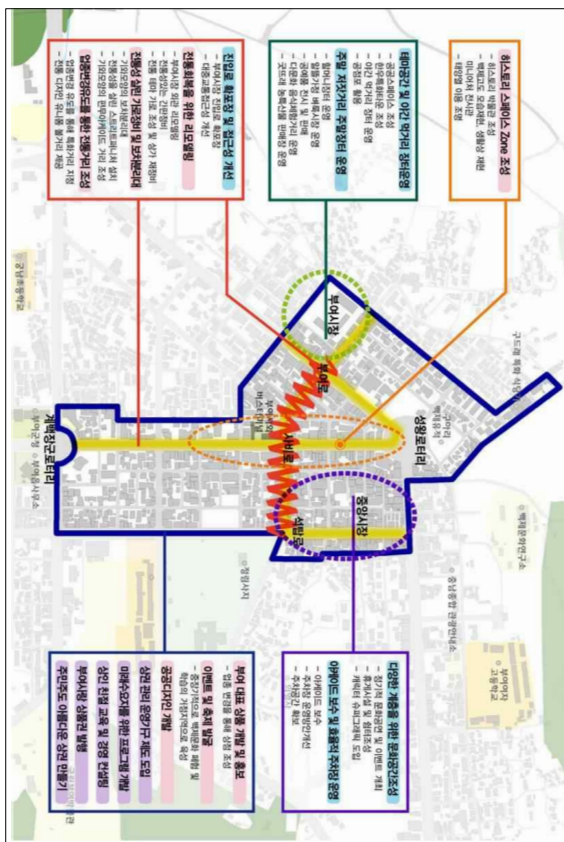
○ 주민주도의 아름다운 상권 만들기 추진

- 1상점 1화분 가꾸기 운동을 실시하여 사비로 가로 미관 개선
- 상점 앞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환경정비
- 주민주도의 환경캠페인 실시

[3] 계획기간 및 추진주체

구 분	계획기간연차					주 체
	1	2	3	4	5	
○ 상인 협의회 결성 및 상권 관리 운영기구 제도						부여군, 상인, 주민
○ 다양한 이벤트 및 마케팅 방안 추진						부여군, 상인, 주민, 전문가
○ 미래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부여군, 주민, 전문가
○ 빈 점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						부여군, 주민, 전문가
○ 전문가 멘토링 및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전문가, 상인
○ 부여사랑 상품권 발행						부여군, 상인
○ 주민주도의 아름다운 상권 만들기 추진						부여군, 상인, 주민, 전문가

58



[그림 24] 종합구상도

59

지 정 토 론

김남룡(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김항집(광주대학교 도시계획과)
류태창(시장경영진흥원)
이형복(대전발전연구원)

-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이기 때문에 많은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부여의 도심재생은 지역자산인 역사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즉,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창조도시의 개념으로 도심재생 통한 상권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이는 도시전체를 박물관화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는 세부적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창조계급이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도시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창조산업을 창출하고 창조산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임.
- 이에 따라 부여의 도심재생을 통한 상권활성화는 지역내 인구를 목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타지역 사람들이 부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재생인 지역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인 지역 문화 프로그램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

부여의 도심재생을 통한 상권활성화 전략은

1. 도시전체를 박물관화 창조도시 지향 전략
 - 도시 전체를 박물관화하고 이에 따라 도심을 재창조하는 전략 필요
2. 역사성 있는 골목길 활용 도심재생
 - 도읍지이므로 많은 골목길이 존재할 것임

62

- 역사성 있는 골목길 활용하여 옛 향수가 뿜어 나오는 감성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함
- 예를 들면 1500년 된 옛 성왕길, 계백장군 길, 등등

3. 도심의 빈점포활용 부여예술촌 조성 사업

- 도심에 산재해 있는 빈점포를 활용해서 창조적 문화를 생산하는 창조계급을 유치시켜 예술촌으로 개발해야 함.
- ex) 성왕 궁중문화예술촌, 백제문화 공예촌 등등

4. 적절한 행정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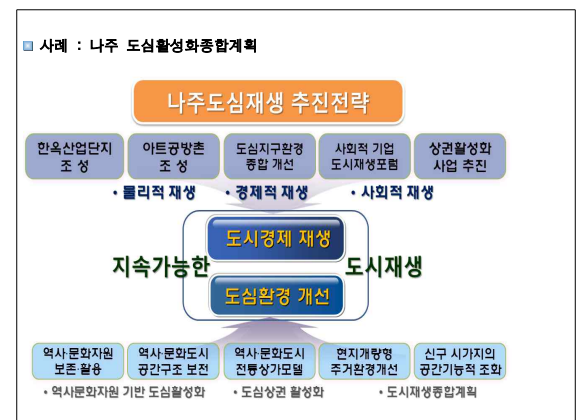
- 도심재생에 있어서 공공재와 같이 공공적 요소가 필요한 물리적 재생은 필요한 것이므로
-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

5. 지역상인들의 희생정신 요구

- 도심재생을 통한 상권활성화의 최대 수혜자는 해당지역 상인들이므로
- 지역상인들의 희생없이 도심재생을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
- 지역상인과 함께하는 도심재생이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의미.

1. 도심재생종합계획의 필요성

- 상권활성화나 시장리모델링 등 개별 사업만으로 도심재생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물리적 환경정비를 포함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거버넌스 기반의 사회경제적 재생역량 강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심재생계획의 수립 필요



■ 사례 : 나주 도심읍성 정비계획

- [illegible]

역사문화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주읍성 전통문화상권

나주읍성 전통문화상권 활성화기구

- 상권 과학화
- 시장 환경개선
- 상권 특성화
- 문화 축제연계

추진주체 ↔ **추진전략**

나주읍성 르네상스 축제	내용	슬로푸드음식문화제, 4대문빛축제, 나주읍성카니발, 골목길예술제 등		
	진행	주간·야간 프로그램 - 계절별 상시 축제 ※ UNESCO 창의도시 추진		
	운영	나주문화원 등 지역의 참여와 협력 - 미래지향적 축제프로그램개발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디움형, 축제와 연계한 문화도시관광, 시민참여의 소통 및 상생 • 야간빛축제와 카니발을 통한 야간상권 활성화 기대 • 세계문화도시와 축제·문화 교류(구이리/아비뇽), 전통문화도시브랜드 강화 		
4대문		읍성지구		나주천
나주 4대문 빛축제		나주읍성카니발		나주천 달빛축제
				
골목길 예술제		소리 음악제		나주이심곡원
				
				더자얀 비엔날레
				

부여 상권활성화와 연계한 도심재생 토론회 토론회

대전발전연구원 이영복

1. 1980년대 중반 이후 지방대도시 도심에서 산업 및 중추관리기능의 약화, 상주인구 감소 등의 도심쇠퇴현상이 발생하여 도시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함
2. 도심쇠퇴방지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았고 단편적 재개발사업 위주로 대처함. 그러므로 차별화 되는 종합도심관리전략을 실시하여 도시전체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해야 함
3. 지방도시의 대부분은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미흡과 중추관리기능의 외곽이전 등으로 관련 산업의 동반 이전으로 쇠퇴는 가속화됨
4. 지방도시의 도심지역은 기반시설의 노후화, 좁은 도로와 주차시설의 부족, 높은 건폐율과 낮은 용적률로 인한 저층·고밀의 건축물 등 압축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5. 도시가 불균형적으로 성장하여 지역간 격차(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확대되기도 하고 도심의 중심성이 약화되어 도시전체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지 못함. 이처럼 쇠퇴된 도심공간에 대해서는 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운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의 노력이 필요함
6. 도시재생의 개념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개념에서는 Renovation(수선, 쇄신, 원기 회복), 도시적 개념에서는 Regeneration(개혁, 쇄신, 재생), 문화적 개념에서는 Renaissance(부흥, 부활, 신생)으로 정의할 수 있음
7. 지역의 도시재생 하고자 할 시는 지역의 특성을 우선 파악하여 위의 3가지 재생에서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8. 부여의 도시는 과거의 역사를 자원으로 한 관광형 도시와 일반적 도시생활패턴 도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됨. 특징 없는 도농통합도시 형태로서는 타 도시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
9. 부여군은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 지역활성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투자 등

민간의 힘을 도심에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중점과제의 하나로 「도시재생」에 주력해야 함.

10. 부여 도시는 부여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상징성을 유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도시계획적으로도 계획이 되어야 함. 즉 주민들이 가장 빈번히 접촉하고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우선적으로 맞이하는 공간•집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함
11. 지금까지 부여를 견인하여왔던 역사자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이 이루어 져야 하며, 문화부문(소프트웨어)의 상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문화전략을 선도적으로 채택하고 시행되어야 함
12. 부여와 같이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지역에서는 역사, 문화유산 활성화, 지역자산의 콘텐츠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필요성이 높음
13. 주민단체와 지자체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여야만 성공률이 제고되는 것은 필수조건임
14. 앞으로 부여의 상권활성화와 연계한 도시재생은 도시기능 활성화와 도시공간의 어메니티 증진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특성을 갖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주민주도형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부 록

2012년 10월 15일

부여 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회의록